

---

2009 지방재정 세미나

---

# 환영사

박 광 태 · 유 태 명

(광주광역시시장)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환영사

존경하는 지방재정 관계자 여러분!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빛고을 광주’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주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경제 위기시 지방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주에서 지방재정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지방재정학회 신종렬 회장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국현 이사장님, 그리고 지방재정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학회 회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 관계자 여러분!

만년 소비도시로 알려졌던 우리 광주가 이제는 후발지역의 이점을 살려 21세기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생산도시」로 발전하여 낙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활가전, 광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고미래의 신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디자인, 가전로봇, 클린디젤 등 첨단산업들을 녹색성장 선도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수도 광주」를 조성해 가고 있으며

지난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룩한 2015년 하계 U-대회 유치 쾌거는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겨루는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재정가족 여러분!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적극

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투자, 소비, 고용을 진작시켜 침체된 실물경기를 부양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지방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재원을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 지방채 확대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재정세미나에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지방재정의 산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향이 제시되길 바라면서 여러분께서 지방재정 발전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자치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여러분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 6. 18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 환영사

먼저 2009년 지방재정 세미나가 빛고를 광주 동구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가 이곳 동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크게 애쓰시고 평소 지방자치발전을 뒷받침하고 계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국현 이사장님과 한국지방재정학회 신종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님, 발제와 사회, 토론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각 재정분야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IMF 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련의 정책변화로 인해 지방재정운용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자구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저희 광주 동구에서도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 경기활성화와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흐른 현재 지방재정규모는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역간의 경제 및 재정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저하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재정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부족한 재원을 내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자구적인 비용절감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 소득소비세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세미나가 현재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기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지방재정 세미나를 축하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유 태 명**